

현장에서

간화선 수행 그 뜨거운 현장

지난 6일 밤 10시,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큰선방에는 성인남녀 50여명이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하고 있다. 바깥은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선방은 화두를 들고 씨름하는 성성한 기운으로 꽉 들어찼다. 한국 간화선연구소가 간화선을 실천하고 탐구하는 법석을 연 것. 벌써 3일째다. 첫 날 한국선원장 수불스님이 내린 화두를 부여잡고 사흘째 철야로 앉으나 서나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스님은 손가락을 움직여 보이고 '무엇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하루에 한두번씩 개인별로 화두를 점검해주고, 법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느라 스님도 진땀을 흘렸다.



하정은 기자

화두가 달아나고 힘이 빠져나가고 땀이 땀에서 안좋은 기운이 치밀어 오른다는 체험자들의 질문과 고뇌를 듣고 수불스님은 한마디로 잘라 답했다. "불굴의 용맹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 쳐지고 주리가 틀어지도록 빠져라 느끼면서 파고들어야. 생사의 문제를 알려면 적어도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쏟아졌던 질문들이 일제히 닫히면서 실천자들은 또다시 정진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직업도 연령도 천차만별이다. 요가선생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기자, 사진작가, 대학원생, 대학생...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꼭 해야 할 임무도 아니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근본에 대해 의심하라. 의심을 통한 문제해결 없이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누구나 한번쯤 내면을 향해 여행을 떠나야 한다." 정진이 흐트러지고, 화두가 땅에 떨어지듯 허망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는 순간, 수불스님의 감로법문은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근본에 대한 씩씩한 의심... 선방은 밤새도록 뜨겁고 지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일 서울 예술의전당 V-갤러리를 찾아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의 사진전인 '순례의 길'을 관람했다. 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종교 떠나 ‘순례의 길’ 관람을”

총무원장 자승스님, 리처드 기어 사진전에 지대한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일 서울 예술의전당 V-갤러리를 찾아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의 사진전인 '순례의 길'을 관람했다. 사진전을 기획한 지명문 씨디아이 대표의 초청을 받아 갤러리를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명문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사진을 관람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티베트인들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모습, 특히 티베트 스님들의 일상생활과 수행하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불교적 감동을 전하려 한 리처드 기어의 열의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지 대표에게 리처드 기어의 작품에 대해 질문하는 등 이번 사진전에 깊은 관심을 선보였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 대표에게 "가톨릭 등 이웃종교에서

도 이번 사진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종교를 떠나 많은 성직자들과 신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까지 전시되는 순례의 길은 리처드 기어가 티베트와 인도 잔스카르 등지에서 찍은 사진 64점의 사진작품 '순례의 길'과 베리니스 에보트, 커트 마커스 등 세계적인 사진작가 24명이 자선기부한 사진 컬렉션 '티베트 포트폴리오' 등 총 88점이 선보인다.

박인택 기자

“티베트 비구니 스님 교육 큰 보람”

망명 티베트 여성지도자 린첸칸도 불교여성개발원 초청 특강서 밝혀

“현재까지 티베트 불교내에 비구니 스님을 위한 교육체계가 없었습니다. 학식이 깊은 여성수행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동안 티베트 망명정부가 운영하는 비구니 스님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한국 여성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여성 지도자인 린첸칸도(사진) 티베트 년 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총재는 한국 여성 불교계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린첸칸도 총재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초청으로 열린 특강을 통해 “현재 13억 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티베트에 있는 국민보다 많은 수”라고 티베트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인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제2의 고향인 인도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티베트로 돌아가는 날을 손꼽으며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첸칸도 총재는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두 번째로 장관이 된 여성이다. 내무부, 보건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10여 년간 내각에서 장관으로 힘을 보탰다. 또한 1987년 망명정부 산하에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건강, 수행 등을 지원하는 티베트 년 프로젝트를 설립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막내 동생



인 텐진 최결 나리 린포체가 그의 남편이다.

린첸칸도 총재는 “달라이라마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이취하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망명정부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티베트 년 프로젝트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이 훌륭한 학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여성불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들을 매일 돌보아야 하는 어머니는 큰 인내와 자비, 친절이 필요한 만큼 집에서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도 또 다른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정철 기자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쉽지만 정진”

신홍사 하안거 포살법회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홍사(주지 우송스님)는 지난 6월28일 교구종회를 열고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교구종회에서는 “본사와 각 말사들이 역량을 모아 복지포교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결의했다.

교구종회에서 신홍사 주지 우송스님은 “신홍사 주지로 취임하여 2년여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홍사가 되기 위해 쉽지만 정진해왔다”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화합으로 마음을 모아온 교구의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홍사는 본·말사 주지 스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5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하정은 기자



제3교구본사 신홍사는 지난 6월28일 본·말사 주지 스님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5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본·말사 주지인사

7월5일 중무회의의 결과

무위스님 진천 용화사	정효스님 부여 금지암	홍법스님 태안 태을암

2011년

# 노고산 흥국사 여름 템플스테이

약사도량 흥국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여름 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자연 풍광이 수려한 천년고찰에서의 산사체험은 참가자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1차	7월 21일(목) ~ 7월 23일(토) (2박 3일)	초등학생	80명
2차	7월 28일(목) ~ 7월 30일(토) (2박 3일)	중·고등학생	40명
3차	8월 4일(목) ~ 8월 6일(토) (2박 3일)	일반인	40명

- 장소: 흥국사 설법전
- 시간: 당일 오후 1시
- 준비물: 팔기도구, 세면도구, 우산, 공양미, 수영복(초·중·고등학생)
- 참가비: 초등학생 30,000원 / 중·고등학생 40,000원 / 일반인 50,000원  
T셔츠, 기념품, 기념사진 제공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6-096112 (예금주 흥국사)
- 접수안내: 흥국사 중무소 Tel 02)381-7970 Fax 02)381-7329  
홈페이지(www.heungguksa.or.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 오

#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 “끝없는 열정”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교과목 및 교수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b>불교학과</b>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번아사상, 유식사상, 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b>교수진</b> 무진정 대종사 학장스님, 주명철 교수, 정영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홍서 교수, 윤영수 교수, 김희귀 교수, 황인성, 최봉수 교수, 김성현 교수, 묘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승 교수, 정병호 교수, 차처사 교수 외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목요일·통신반 각 60명) 불교다도학과 (30명) 불교미술학과 (30명) 불교한문학과 (30명)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형편사진 3매	[불교학과] 9월 개강학과 2011년 7월 2일 ~ 8월 6일 2011년 7월 1일 ~ 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반) (통신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진사항: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